

한국 고고학 성립 시기 청동기 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윤무병(1924~2010)의 연구를 중심으로 -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anginuk@khu.ac.kr

국 문 초 록

해방 직후 한국 고고학의 성립기에서 청동기시대의 설정은 가장 핵심적인 성과중 하나이다. 일본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금석병용기시대를 반박하고 청동기시대라는 개념을 안착시키고 청동기 연구의 기반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물은 윤무병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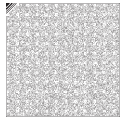
그동안 윤무병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꼽히는 세형 동검의 형식분류와 전개과정 이외에도 청동기시대의 설정도 주요한 성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 지석묘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파주 옥석리의 발굴이 한국 청동기시대의 설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윤무병의 성과를 그와 함께 한국 고고학계를 주도한 김원룡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해방이후 한국 고고학을 둘러싼 환경도 고려하여 그 현상을 해석했다. 윤무병의 연구는 동아시아재단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하드웨어적 기반과 일본 고고학에서 출발한 정치한 형식적 기법이 결합된 것이다. 한편 자료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울러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북한 연구의 소개와 북방 지역 자료를 소개한 김원룡의 역할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윤무병의 연구는 1960년대 탈식민지라는 주요한 과제를 한국 고고학계가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볼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일본 편년관의 의존으로 청동기시대의 편년관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한반도 청동기의 편년을 '문화지체 현상'에 근거하여서 만주나 북한과는 동떨어지게 본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물론, 21세기의 시각으로 윤무병의 연구를 재단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윤무병이 견지했던 유물에 대한 천착이라는 고고학적 전통을 새로운 연대관과 거시적인 안목에 결합하여 새로운 연구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1세기 세계화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 고고학의 저변을 확장해야하는 시점에 윤무병의 연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제어 한국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사, 세형동검, 윤무병, 김원룡

투고일자 2021. 03. 30. ● 심사일자 2021. 04. 16. ● 게재확정일자 2021. 04. 18.





1. 들어가며

1960년대 한국 고고학과 고대사의 태동 시기에 가장 큰 화두는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의 청산이었다. 광복 이후 전 사회적인 강력한 요구는 역사와 고고학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대사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인정’, 그리고 고고학계에서는 ‘금석병용기의 청산’이라는 문제가 시대의 큰 화두였다. 그럼에도 한국 고고학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으니, 바로 방법론이나 연구의 모든 기반을 동시에 일본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연구자들은 일제 때 교육을 받았고 일본의 방법론과 형식학이 유일한 연구 자료였다.

특히 광복 직후 일본의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청동기시대는 없었고 금석병용기시대라는 개념을 고수했다.¹ 즉 한국의 청동기시대 연구는 일본의 고고학적 방법론을 수입하되 그들이 짜놓은 편년 틀을 깨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과정에서 1960년대 청동기시대라는 개념을 안착시키고 청동기 연구의 기반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물은 윤무병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윤무병(1924~2010)은 그러한 전환기의 상황에서 한국 청동기시대의 연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했다. 그와 함께 평생 연구 활동을 하며 고고학 기초를 세운 김원룡은 그를 ‘남한의 유일한 고고학자’라고 치사하였는데(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4: 서문), 그 근간에는 그의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세형동검의 형식 분류」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에서 형식학에 근거한 본격적인 청동기 연구를 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윤무병의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비파형동검 시기의 연구 또한 재조명받아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고인돌과 무문토기 주거지가 중첩 조성된 파주 옥석리의 발굴과 C14 연대 측정은 세형동검의 형식 분류 못잖게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윤무병의 연구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 청동기시대가 설정되었지만(김원룡 1964), 실질적인 자료의 발굴과 분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북한 자료의 간접적인 소개(지탑리 발굴 등)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에 청동기 유물 연구에 지식묘의 발굴을 더하여 한반도 청동기시대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한국 고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한국 청동기의 편년을 지나치게 하향 편년하여 동북아 청동기시대의 거시적 편년관과 멀어지게 된 점은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윤무병의 연구는 한국 고고학의 성립 시기에 청동기시대를 설정하며 한국 고고학의 기반을 세우는 과정을 돌아보는 시금석과 같은 위치이다. 동시에 남한의 지역적인 틀을 깨고 거시적인 연구로 나아가는 21세기 남한의 고고학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학사적 가치가 있는 주제임은 분명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1960~70년대 한국 청동기시대의 설정 과정에서 윤무병의 역할과 그 의의를 그의 연보와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후지타 료사쿠는 연길 소영자 유적과 같은 다양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에도 불구하고 무문토기와 즐문토기는 공존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야요이 문화가 조몽시대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편년관을 버리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일제강점기의 금석병용기시대는 매우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강인욱, 2009: 98~99).

2 광복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 성과는 1964년에 간행된 『한국문화사대계 1 - 민족국가사』에 수록된 김원룡(1964)과 김정학의 글이 대표적이다. 특히 김원룡의 글은 이후 1966년 영인본으로 개인 출판되었고 1972년 일본에서, 1973년 한국어판으로 출판된 『한국 고고학 개설』의 모본(母本)이 되었다. 즉 광복 이후 최초 한국 고고학 개설의 시작은 1964년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그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다.

II. 윤무병의 학문적 배경³

1. 만주국 시절(1935~1945)

윤무병은 1924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1935년 만주국으로 이주하여 광복 때까지 거주했다. 그는新京(지금의 길림성 장춘)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거쳐新京법政大學(新京法政大學) 정치과(1942~1945)를 졸업했다. 만주국 성립 이후 조선인들의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만선사관으로 대표되는 역사교육이 널리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윤무병은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 교사와 함께 장춘과 길림시 일대의 선사시대 유적을 조사하며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기 시작했다. 윤무병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의 역사 교사였던 오시다 킨이치(吉田金一)로, 그는 미카미 쓰구오(三上次男), 사이토 다다시(齊藤忠) 등과 동경대학 사학과에서 함께 공부하고 일본 패망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자로 활동했다. 또한 학창 시절에 주로 탐독했던 서적들도 당시로서는 가장 유망했던 만선사관에 입각한 만주사와 동북아시아 고고학 관련 서적들이었다(윤무병 1991: 132). 그런 점에서 윤무병의 학문적인 배경은 ‘만주국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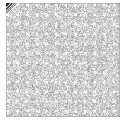
본래 윤무병은 고고학을 전공하는 대신에 법률가로서의 길을 택하고 만주국의 사법요원을 양성하는 엘리트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급격한 만주국의 몰락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무병은 광복 이후 자신의 취미였던 고고학으로 전공을 바꾸며 고고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윤무병이 초년 시절부터 만선사와 만주 지역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윤무병(1991)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만주국 시절에 길림 일대의 선사시대 세석기를 수집하며 고고학에 관심을 기울이

게 되었으며, 대학 입학 직전에 무리하게 광개토대왕비를 견학한 후 평생의 병인 소아마비를 얻을 정도였다. 이러한 그의 만주와 북방 고고학에 대한 관심은 그가 초년부터 공부했던 만주국의 역사 커리큘럼인 만선사관과 다양하게 실견했던 만주 지역의 선사시대를 감안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정작 윤무병이 광복 이후 남한에서 전개한 본격적인 고고학적 연구는 남한에 국한되었으며 만주 지역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연구 경향은 1970년대 이후 만주 지역의 자료가 자유롭게 입수되는 시점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단순한 자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실제 북방 지역을 연구할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윤무병이 왜 광복 이후에 만주 지역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런 그의 연구 전환은 그와 평생 동안 고고학을 함께하며 양대 산맥을 이룬 김원룡과 좋은 비교가 된다. 김원룡은 경성제대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등으로부터 고고학 수업을 받았다는 점에서 만주국 출신의 윤무병과 다른 학문적 배경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윤무병과 달리 김원룡은 만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보였다. 김원룡은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기 전인 1960년부터 이미 대부분 도굴당한 채 소략하게 보고된 서풍 서차구(西豐 西岔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김원룡 1960). 서풍 서차구는 최근에 청주 오송에서 유사한 동병철검이 출토되면서 다시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정도로(윤정하·강인욱 2021) 지금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후 김원룡은 고조선과 관계되는 심양 정가와자(瀋陽 鄭家窪子), 자바이칼 지역의 쉴카 동굴 유적 등 만주와 북방 지역의 고고학은 물론 시베리아 등 새로운 유적이나 유물이 나올 때 신속하게 보고했다(김원룡 1960, 1961, 1962, 1970, 1976). 이러한 그의 북방에 대

3 이하 윤무병의 개인 이력은 별도의 부기가 없으면 1984년 간행된 『윤무병 박사 회갑 기념 논총』과 윤무병의 자서(윤무병 1991)에 근거한 것이다.



한 관심은 이미 195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뉴욕대학 유학 시절에 시베리아 고대 미술과 고고학의 전문가였던 독일 출신의 Alfred Salmony(1890~1958) 교수로부터 사사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윤무병이 왜 초년의 품었던 만주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피력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그 배경을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윤무병이 만주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북방의 중국과 북한을 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채병서와 같이 북한에서 월남한 고고학자도 1960년대에 활약했었음을 감안하면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 보긴 어렵다. 오히려 윤무병이 대학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실무와 발굴 등을 담당했던 정황과 연관 짓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즉 다양한 문헌 자료를 섭렵해야 하는 만주나 북방 지역의 고고학 대신 실제 유물을 직접 접하는 데 유리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상황에서는 남한의 청동기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윤무병이 남한의 유적과 유물 자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함에 따라 만선사관 대신에 당시 일본열도의 고고학에서 발달했던 형식학에 기반을 둔 편년 및 연구 방법이 그의 연구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선택은 오히려 새로운 주제인 청동기에 천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서울대 및 국립중앙박물관(1947~1962) - 고고학자로의 도약기

윤무병은 광복 직후 서울대학교 박물관(1947~1951)에서 근무했고, 이후 국방부 전사편찬회의 사무관을 거쳐 1954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후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인 1962년까지를 고고학자

로서의 커리어를 쌓는 도약기로 설정할 수 있다.

청동기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소장되어온 수많은 청동기 유물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청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한국전쟁 직후 국립중앙박물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감은사지』, 『의성탑리고분』, 『한국서해도서』 등의 서적을 발간하며 고고학자로서의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도 이러한 그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도미하기(1962년 4월) 전까지 모두 15편의 글을 발표했다. 그 중 6편은 역사 관련이고 나머지 7편은 미술사, 그리고 고고학은 2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문헌사와 관련된 그의 논문이다. 그의 역사 논문은 1953~1959년에 집중되었고, 그 대부분은 고려사, 특히 고려의 북방사에 집중되었다(윤무병 1953a, 1953b, 1958). 즉 문헌사에 대한 연구로 보면 윤무병은 1950년대 초에 만주국 시절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만선사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나갔다. 그 밖에 다수의 보고문은 조선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미술사와 관련된 것이다. 고고학 주제로는 오이도 패총(윤무병 1960) 답사기와 화성군 출토의 백제 토기에 대한 것이다. 모두 유적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 보고문 형식이다. 이는 당시 거의 유일한 고고미술 관련 잡지 『고고미술』에 실린 여타 논문들을 볼 때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의 2편의 보고문에도 고고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즉 출판물로만 본다면 윤무병이 고고학, 특히 청동기시대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는 그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사하면서 북방사에 대한 관심을 고고학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살모니는 유태인으로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해 뉴욕대학교에서 중국 북방과 시베리아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대표적인 책으로 파리의 중국 골동품 컬렉터 C. T. Loo가 수집한 북방계 청동기에 대한 저서(Salmony, 1933)와 시베리아의 청동기 연구(Salmony, 1943)가 대표적이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미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에 체재했으며, 그 인연으로 김원룡의 유학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마제석검의 오르도스기 원설, 안테나식 동검과 같은 김원룡의 북방문화 연구는 살모니의 연구와 많이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할 예정이다.

아직 윤무병이 청동기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 시기에 청동기와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기원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김원룡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중에 창간된 『역사학보』에서 경주 구정리 출토 세형동검 일괄 유물을 소개하였으며(김원룡 1952a), 이어서 1947년에 출판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조선고문화총람(朝鮮古文化綜監)』(총 4권)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하였다(김원룡 1952b).

『조선고문화총람』은 일본 패망 직후 한국 고고학을 담당했던 우메하라 스에지와 후지타 료사쿠가 미국으로부터 한국 문화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서 출판한 것이다.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출판 직후 조사된 청동기~고구려시대의 유물을 소개한 도록이다. 특히 청동기 유물이 대거 집대성되어 초기 한국의 청동기시대 연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중 1권 ‘낙랑전기(樂浪前期)’편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금석병용기의 틀을 깰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즉 ‘낙랑전기’에서 우메하라 스에지와 후지타 료사쿠는 일제강점기에 지속되어오던 “한나라의 낙랑군 설치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국에서도 청동기가 사용되었다”는 편년관을 수정하고, 낙랑성립 이전 시기에 이미 한반도에 청동기 유물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계통은 북방 초원 계통 및 중국 유이민의 이동에 따른 전국시대의 유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서북한에서 다수 발견된 명도전 매납 유적과 전국시대 말기의 청동기(과, 동모, 기년명 자료), 석암리 9호분 출토를 비롯한 황금과 청동 동물 문양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청동기시대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금석병용기시대’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명도전과 같은 낙랑 이전 시기를 대표하는 유적들은 북한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며 남한과 일본은 한대(漢代)를 중심으로 사용된 세형동검과 한나라 기년명 자료를 중심으로 편년이 된다고 보았다. 즉 우메하라와 후지타는 낙랑 이전의 청동기시대 관련 유물들을 전국시대 유이민이 도래했던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낙랑전기’라는 어정쩡한 제목으로 얼버무린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청동기가 유입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북방이나 만주 지역이 아니라 일본 야요이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틀을 유지했다.

이와 같이 『조선고문화총람』은 일제강점기의 편년 틀을 유지한 채 낙랑군 이전에 북방 지역에 중국계와 초원계로 나뉘는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남한의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가 존재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실제로 이 책의 출간 직후 한국 고고학계에서도 청동기시대에 대한 관심이 즉각적으로 표출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원룡 1952a, 1952b). 낙랑 이전 시기의 자료에 더하여 1960년대 이후 중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보고된, 만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비파형동검 관련 유적은 한국에서 새로운 청동기시대의 연구가 가능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가 윤무병의 청동기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50년대 윤무병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조선고문화총람』에 소개된 대부분의 자료를 직접 접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출판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1950년대의 이와 같은 새로운 청동기 연구에 대한 움직임은 윤무병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미국 연수와 청동기시대 연구(1962~1973)

이 시기는 윤무병의 청동기시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다. 발표된 논문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윤무병은 1966년 발표한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인 「한국 청동단검의 형식 분류」 이전에 청동기시대에 관한 논문은 단지 1편에 불과했다. 즉 1964년에 발표한 「대구 발견의 청동부」라는 보고문인데, 이 논문에서 그는 단순한 보고를 넘어 비교적 상세하게 청동기의 계통과 그 유입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이후의 연구와 달리 시베리아 및 오르도스 청동기에서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을 연결시키며 중국 북방에서 청동도끼의 조형을 찾았다. 즉 1964년의 연구는 김원룡의 청동기 기원에 대한 설



을 상당 부분 채용한 것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후 1966년의 동검 연구에서는 형식학에 근거한 독자적인 연구의 영역을 개척해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무병이 본격적인 청동기 연구를 개시한 시점은 이미 40이 넘는 나이였다. 40대에 전공을 바꾸어 학계를 섰다는 연구를 내놓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예가 무척 드물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늦은 시기에 발아된 그의 연구는 미국 연수 시기와 맞물린다. 그는 1962년 4월부터 1년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연수를 했다. 대학교 도서관은 냉전 시기 북한과 중국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수되었다. 대학교에서 윤무병은 다양한 자료를 습득할 수 있었고, 당시 북한에서 발표된, 당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뛰어났던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반의 연구 환경은 40대가 넘는 그가 청동기 연구자로 거듭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 연수 이후 윤무병의 청동기시대 연구는 미국의 새로운 지원을 받아 더욱 심화된다. 바로 대학교 도서관과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행한 최초의 선사시대 연구인 지식묘 발굴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발굴 자료에 대한 C14 연대 측정, 파주 옥석리, 그리고 남방식 지식묘인 제천 황석리 고인들의 발굴 등 고인돌과 한반도 청동기시대 연구에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 청동단검 연구도 1966년에 발표되어 유물의 속성에 근거한 편년이라는 방법을 한국 고고학에 정착시킨다.

이러한 그의 연구 과정이 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문화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아시아재단이 있었다(표 1).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정종현 2019) 아시아재단은 김원룡의 뉴욕대학 박사과정 장학금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직후 국립중앙박물관 장비 및 해외연수, 발굴보고서 작성,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지원 등 한국 고고미술사학계에 전

방위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 학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이 재정 지원 및 펠로우십 제공만 있었다. 대신 미국 고고학과의 실질적인 교류나 방법론의 수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⁵ 미국의 도움은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재정적인 지원 및 북한과 중국 자료에 대한 접근 쪽이었다. 고고학의 방법론과 편년관 같은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일본의 틀을 유지했다. 예컨대 남한 최초의 선사시대 주거지인 두정리 발굴지를 방문한 아리미쓰 교이치의 방한 역시 아시아재단의 지원 덕분이었다. 정리하면 1960년대 윤무병의 한국 청동기시대와 청동기 연구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일본 고고학의 영향과 미국과의 협력 관계라는 두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표 1 아시아재단의 고고학 관련 주요 지원 사업(정종현 2012: 137~138 도표 참조)

프로그램	비용 및 기간	기간(년)
전시용 쇼케이스 제작 지원	5,000달러	1954~55
촬영 장비와 수장고용 제습기	2,000달러	1954~55
김원룡 뉴욕대학 펠로우십 장학금	2,000달러	1954~55
울릉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비용 미상	1957
박물관 시리즈 출판 지원(을유문화사)	3,000 달러	1961
교토대학교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교수 초청(1개월)	비용 미상	1963
서울대 고고학과 졸업생 박물관 1년 인턴	비용 미상	1965(?)

4. 충남대 재직과 비파형동검 문화의 연구 (1973~1987)

1974년 봄을 기점으로 윤무병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떠나 충남대로 옮기며 본격적인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는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의 연구는 주로 백제 고고학과 후학 양성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청동유물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적어진다. 물론 충남대 박사학위논문으로 「한국 청동유물의 연구」가 제출되었지만 이들은 이전의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연구 성과

5 물론 동삼동을 발굴하고 석장리를 발견한 모스(Morse)와 샘플(Sample) 부부의 조사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체이스(Chase) 상사와 같은 주한 미군 고고학자의 조사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예외적이었으며 한국 고고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를 종합하거나 동북 지역의 청동기를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할 뿐 새로운 연구나 견해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남산군, 정가와자, 부여 송국리 석관묘 등 한반도 청동기의 편년을 재고할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었지만, 윤무병은 마제석검 및 한반도 청동기시대와는 유리된 청동기만의 편년관을 유지한다. 즉 비파형동검 시기는 명도전이 출토되는 기원전 4세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연구 말년인 데다 대학교에서 다양한 발굴 및 후학 양성에 집중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III. 주요 연구의 논점

비파형동검 단계와 마제석검 등 청동기시대에 대한 윤무병의 논문을 시대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중심으로 그의 연구 업적을 짚어보겠다.

1. 한국 청동단검의 형식 분류(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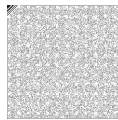
이 논문은 윤무병의 한반도 동검에 대한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여기에서 비파형동검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명도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철기와 세형동검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에 이미 청동기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연구에서 윤무병은 세형동검의 형식 분류 기준을 등날로 하는 탁건을 제시했다. “검신 등대의 <모 세우기>의 길이로 동검을 I, II식으로 나눈 것은 … 윤 교수의 즉물주의의 꼼꼼한 학문 태도의 성과이며 이 분류가 우리 청동기시대의 편년, 발전 과정 파악의 큰 바탕 또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표현(김원룡 1987: 27)은 이 연구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무병의 연구는 단순한 형식 분류에 그친 게 아니라 비파형동검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명도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철기와

세형동검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에 이미 청동기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의 연구 이전에 이미 김원룡(1961)이 십이대영자 유적을 소개하며 세형동검보다 이른 시기에 비파형동검이 존재했음을 밝혔다. 이에 기반하여 윤무병은 만주에 비파형동검이 존재했고 이것이 다소 변천을 거쳐 한반도식 후기 비파형동검(제1류)으로 전환되었고, 다시 세형동검으로 전개되었다는 설을 확립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연구가 지극히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일본 학자의 설을 깨는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메하라 스에지(1947: 65)는 동검의 발달 과정을 정반대로 상정하여 ‘세장하고 예리한 세형동검 → 폭이 넓고 뒷날이 발달한 세형동검 → 비파형동검’ 순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우메하라의 설은 일본 중심의 편년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일본에서는 세형동검의 날이 넓어지고 실용성을 상실한 광형동검을 전제하고 그에 가까운 비파형동검이 더 늦다는 식으로 편년했다. 즉 동검의 형식학적 변천이 기술의 발달과 무기로서의 기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사 등의 용도로 과장되게 제작되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천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어느 지역의 동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색한 형식 변천 도식이다. 그럼에도 이런 형식 변천을 상정한다는 것은 일본열도의 고고학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고고학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일본 중심의 고고학적 연구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한국 청동단검의 형식 분류와 관련하여 그가 형식 변천의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세형동검의 등날 범위가 과연 독자적인 연구인지, 아니면 정찬영(1962)의 연구를 참고했는지 혼선이 있어왔다.⁶ 이와 관련하여서는 윤무병의 1966년 「한국 청동단검의 형식 분류」에서 윤무병 스스로 정찬영의 논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없다. 이 논문에서 윤무병은 이미 정찬영의 논문을 2차례에 걸쳐 소개하였으며 참고문

6 이러한 혼란이 생기게 된 원인은 윤무병이 회고 논문(윤무병 1991: 143)에서 “최근에 입수한 북한의 고고서적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이 방법에 의해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착오하여 기재한 것에서 기인한다.



현에도 분명히 정찬영의 이름과 그의 논문이 명시되어 있다(표 2). 정찬영의 논문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 윤무병의 회고는 착오임이 분명하다.⁷

그러나 이 第Ⅲ式(筆者가 말하는 第Ⅰ類)의 滿洲式 銅劍에 對한 年代는 그후 新出인 資料에 對하여 크게 修正되었다. 오경남에 의하는 이것을 西紀前 5世紀頃 以前으로 보는 見解가 보통이다(圖). 사실에 따라서는 遼寧省의 遼寧縣遺蹟 出土의 滿洲式 銅劍과 伴出된 銅戈의 型式이 西周末 春秋初의 流行型을 強調하여 그 年代를 西紀前 8~7世紀頃까지 올려 보는 사실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滿洲式 銅劍의 年代에 對하여 우리나라 青銅劍들은 紀元前 3~4世紀를 더 올라갈 수 없는 것 같다. 그물(3)의 鐵製短劍들과도 함께 出土되며 아무리 도라도 中國의 戰國時代 以後로 내려온다. 우리나라 歷史에서 말하는 『箕子朝鮮』에서 『衛滿朝鮮』에 전

(2) 梅原・藤田『朝鮮古文化』(第1輯 解説) 65頁.

(3) 金元龜 銅劍 論及 正찬영 『동은 조선의 형태와 변천』.

그림 1 윤무병의 논문(1966)에 언급된 정찬영의 논문

윤무병의 착각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북한의 논문을 제대로 참고할 수 없었던 1960년대의 상황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검의 등날 외에 세밀한 유물 관찰에 근거한 정치한 형식학적 방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정찬영의 연구를 참고한 여부에 관계없이 이 논문이 한국 고고학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여하튼 세형동검의 등날을 중심으로 한 형식 분류는 정찬영이 먼저 착안했고, 윤무병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았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실 윤무병의 논문에서 세형동검의 형식 분류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세형동검 이전에 이미 비파형동검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점이다. 그 이전에 우메하라 스에지는 세형동검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비파형동검으로 이어졌다는 형식학적 틀을 마련했고, 이것은 한반도 금석병용기설을 지지하는 주요한 근거이었다. 먼저 금석병용기의 족쇄를 푸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것은 김원룡(1961)의 연구였다. 그리고 윤무병은 김원룡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림 2>와 같은 형식의 변천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196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발굴 성과를 소개하여 연구한 것에 주

로 근거한다. 이미 정백운(1957, 1958)의 연구로 대표되듯 195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에서는 청동기와 철기의 연대를 기원전 7세기 이전으로 소급시켰다. 그리고 1960년에는 요서 지역 비파형동검 문화를 대표하는 십이대영자(十二臺營子)(朱貴, 1960)와 오금당(烏金塘)(錦州市博物館, 1960) 유적이 동시에 보고되었다. 십이대영자 유적의 경우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세밀하게 보고되었고 그 후 지표가 되었다. 또한 오금당 유적에서 중국의 서주식 동검이 출토되면서 그 절대 연대를 서주 말~춘추 초로 올려 보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김원룡(1961)은 십이대영자 유적을 소개하고 1962년에는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가 유래하는 중심지… 십이대영자로서 대표가 된 요령 열하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지방의 원래의 청동기 문화는 시베리아 미누신스크 문화와 연관…”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동검 중에는 완전히 세형화되기 전의 과도기적인 형식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김원룡 1962: 164). 그리고 그 연대를 나진초도 패총을 근거로 기원전 6세기로 소급했다.

윤무병이 상정한 한반도식 비파형동검인 I류는 바로 김원룡의 편년관과 연구에 상당 부분 기초했다. 다만 한반도 청동검들의 연대는 명도전 출토를 기준으로 하여 기원전 4~3세기를 소급하지 않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즉 형식적인 서열에 대해서는 정찬영, 김원룡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었지만, 편년관은

滿洲式 銅劍



그림 2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에 대한 윤무병의 안(1966)

7 윤무병이 하버드 시절에 정찬영(1962)의 논문이 간행되었다. 시간적으로는 이때 정찬영의 논문을 접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시 운송 시스템의 미비로 몇 달이나 몇 년 단위로 자료들이 한 번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박양진 충남대 교수의 교시). 대신 정백운과 같은 초기 청동기 연구가 1950년대 후반부터 출판되었다. 또한 『문화유산』은 당시 북한을 대표하는 고고학 잡지로 많이 알려졌다 때문에 추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여전히 우메하라와 일제 고고학의 편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2. 한국 지석묘 연구(1968)와 파주 옥석리 고인돌과 주거지

윤무병은 김재원 등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국 연수 직후 엔칭연구소와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인 지석묘 발굴의 중추를 담당했다. 이 고인돌 조사팀은 이미 발굴 경험이 풍부했던 김정기의 주도 하에 1963년 천안 두정리에서 수혈 주거지를 성공적

으로 발굴한 경험이 있었다(윤무병 1963).⁸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주 옥석리 고인돌의 발굴 중에 그 밑에 중첩된 세장방형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발굴했다. 이후 파주 교하리, 강화도 삼거리 등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발굴이 이어졌다. 특히 옥석리 고인돌 밑의 주거지에서는 이단병식 마제석검이 출토되었고, 탄소 연대도 기원전 7세기 전후인 2590 ± 105 로 나왔다(그림 3). 이로써 마제석검, 특히 혈구를 새긴 석검이 세형동검을 모방했다는 통설을 반박하는 한편, 금석병용기가 아니라 청동기시대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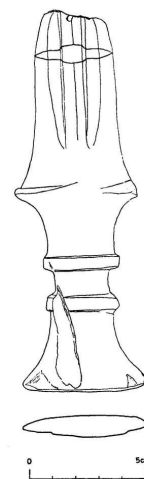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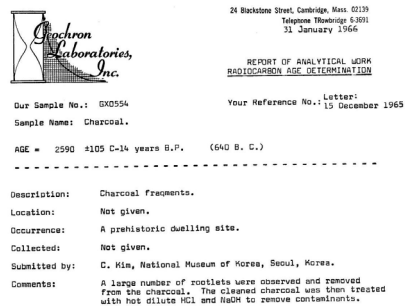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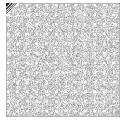


그림 3 파주 옥석리의 고인돌과 주거지(좌) 탄소 연대 측정 결과(우상), 옥석리 출토 마제석검(우하)

8 천안 두정리가 한국 고고학 최초의 수혈주거지 발굴은 아니다. 그 전에 이미 1961년 5월 김원룡의 주도 하에 서울대학교 발굴팀이 남양주 수석리를 발굴했고, 한 달여 후에는 김정학, 채병서 등이 주도하여 고려대학교에서 광주 명일리를 발굴한 바 있다. 다만 천안 두정리는 체계적인 실측도와 함께 보고된 최초의 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한국 고고학의 성과에 일본 학계는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탄소 연대의 과학성과 형식적 변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편년관을 강력히 부정한 아리미쓰 교이치의 반박 논문(有光教- 1968)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일본 학계의 경향은 연이어 보고된 만주 일대의 기년명 자료가 함께 발견된 비파형동검 관련 유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광복 이후 한국 고고학계가 청동기시대를 설정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3. 한국 청동유물의 연구(1972)

윤무병은 세형동검의 형식 분류에 이어 1972년 그때까지의 청동유물을 모두 집대성한 논문을 발간한다.⁹ 이 글에서 그는 비파형동검 단계를 I기에 포함시켜 함께 서술했다. 이는 만주식 동검과 I식(한반도 출토 후기 비파형동검)을 분리한 1966년 논문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비파형동검 문화 단계의 주요한 유물로 비파형동검, 청동단추, 선형동부, 양익식 동촉, 청동도자와 함께 명도전을 꼽았다. 다른 청동유물들은 비파형동검 단계의 것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명도전을 유물로 선정할 이유는 결국 그 상한 연대를 기원전 4세기대로 고정시키게 된다. 이는 아키야마 신고(秋山進午 1968, 1969)의 연대관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아키야마 신고는 야요이 문화의 연대 상한(BC 300)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비파형동검 문화 연대를 300~400년 가까이 떨어뜨렸다. 요서 지역의 중원 계통 유물들은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연대를 적용하고 여기에 전세기간을 100~200년씩 적용했다. 또한 공반 관계가 불확실한 대련 누상(大連 樓上)의 명도전을 들어 요동 지역을 모두 기원전 4세기대 전후로 고정시켰다. 윤무병은 아키야마의 연대관(기원전

5~4세기)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연대관만 약간 차이를 두어 만주 지역의 비파형동검 문화 전기를 기원전 6~5세기, 후기를 기원전 4~3세기로 보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만주의 전기 비파형동검 문화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원전 4세기로 보았다. 윤무병은 논문에서 다소 장황하게 그의 연대관을 피력했으나, 사실상 명도전을 비파형동검 문화의 주요 유물로 규정한 것에서 이미 편년관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윤무병의 편년관은 극도로 편년을 늦게 잡는 아키야마 신고의 편년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며, 윤무병의 연구는 이후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청동기시대의 편년을 만주나 북한과는 적어도 300~400년 이상 차이가 나게 편년하는 계기가 되었다.

4.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1976)

이 논문은 1976년 4월에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서 열린 강의록을 수록한 것이다. 1972년 「한국 청동유물의 연구」가 발표된 후에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편년을 재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성과들이 속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에 대한 윤무병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1974년 봄에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부여 송곡리 석관묘에서 출토되었음이 학계에 보고되었고, 그 직전인 1973년에 남산근 101호 석관묘에서 대량의 서주 중기~춘추 초기의 중원 예기와 함께 비파형동검이 보고되었다. 또한 1975년 초에는 정가와자 6512호 묘가 발굴되어 한국과 일본 학계에 빠르게 알려졌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은 1966년에 보고된 파주 옥석리 주거지의 연대와 함께 청동기시대를 자연스럽게 기원전 8~7세기 또는 그 이상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료에 대하여 윤무병은 한반도 출토의 비파형동검을 “요령성 지방으로부터 들어온 외래품”이며 “한국 내에서 청동기를 주조하기 시작한 시기(즉 세형동검 문화 단계)부

9 이 논문과 지석묘 연구, 세형동검 형식 분류 등의 논문은 1976년 충남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되었다.

터를 엄격한 뜻에서 청동기시대로 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발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가 4세기 말~3세기 초가 되어야 시작되었다는 그의 견해는 단순한 자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청동기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견이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전영래(1978a, 1978b) 역시 그와 비슷하게 지나치게 하향 조정한 청동기시대의 편년관을 주장했다.¹⁰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1980년대까지 영향을 주어 한국 청동기가 동북아시아의 편년과 맞지 않는 편년의 고립화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5. 동북 지역 비파형동검 문화의 연구(1987)

윤무병은 1987년 재야사학의 요청으로 열린 ‘한국 상고사의 제문제’ 세미나에 「동북 지역 비파형동검 문화의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했다. 이 연구는 『한국 청동기 문화 연구』가 출판되고 10년도 지난 후에 등장했다. 이는 한반도가 아니라 요령 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대한 정리 성격이 강하다. 윤무병은 이 논문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와 하가점 상층 문화, 십이대영자 문화, 그리고 요동 지역의 석관묘 관련 유적과 문화를 소개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설이나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 소개했다. 요서 지역의 경우 주로 근풍의(斬楓毅)의 논문(1982, 1983)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근풍의의 동호(東胡)설을 강조했다. 또한 요동 지역의 경우 누상 출토 명도전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이 발표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비파형동검의 신 자료들을 모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유적과 유물의 소개에만 그쳤고 아키야마 신고가 잡아놓은 편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IV. 연구의 의의

1. 석검 자료에 의거한 청동기시대의 설정

위에서 20여년에 걸쳐 발표된 윤무병의 논문 5개로 그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윤무병의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한국 고고학계의 태동기에 처한 다양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연구로 가장 돋보이는 점은 바로 금석병용기를 타파하고 청동기시대를 설정한 데 공헌한 점이다. 금석병용기설은 바로 석검의 기원 문제와 연동되었다. 일제강점기 이래 석검은 동검을 모방했다고 보았고, 그 조형(祖形)을 어디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상한 연대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주 옥석리의 발굴은 그러한 기원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파주 옥석리의 북방식 고인돌 밑 중첩된 주거지에서 기원전 7세기대의 절대 연대가 나왔으며, 이 주거지에서 이단병식 석검이 발견되어,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소개된 만주의 비파형동검 문화 유적(십이대영자와 오금당)과 연결 지어 확실하게 금석병용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탄소 연대를 쉽게 믿지 못하던 분위기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확실한 편년을 제공하는 서주 말기 단계의 중원 예기가 공반된 남산근 101호 무덤이 1972년 발굴됨으로써 그 연대 체계는 더욱 보완되었다. 즉 만주와 한반도 공히 적어도 기원전 8~7세기대에는 청동기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 탄소 연대와 중국 기년명 자료로 확인되었다. 물론 옥석리 연구 성과에 회의를 제기하는 일본 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有光教一 1968), 만주 지역의 다양한 연구 성과와 축적된 한국의 청동기시대 자료로 일본의 주장은 더 이상 지지를 얻지 못했다.

또한 윤무병의 연구 성과에서 지금도 그 의미를 잃지 않는 중요한 점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청동기보다는 석

10 이러한 극단적인 일본 편향의 편년관을 주장한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전영래를 들 수 있다. 그는 탄소 연대 및 중원 예기 등의 교차 편년을 모두 부정하고 송국리 석관묘를 기원전 2세기대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 일본 야요이 연대 편년관을 들었다. “나는 韓國 青銅器 文化에 관한 論考에서 송국리 석관묘의 연대를 위만 건국에 따른 준왕 남천 시기인 전 194~871년 무렵이며 이는 마제석검 문화인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라 주장 … 요령검 AI형을 들어 기원전 10~9세기설을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심한 반박에 직면한 일이 있다. 그러나 北九州 地方의 … 일본의 板付 1식 토기의 연대를 채용할 때 기원전 2세기 전반~1세기 중반에 걸친 것이므로 나의 종래 견해에 타당성을 뒷받침…”(전영래 1978)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그는 극단적으로 편년을 낮추는 것을 과학적인 연구의 하나로 보았다.



검이 위주가 되는 일종의 '석검의 시대'라는 것이다. 최근까지의 연구로도 증명되어 왔듯이 비파형동검 문화 단계에서 비파형동검은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석검의 사용에 밀리는 양상이었다(강인욱 외 2020). 즉 청동기가 중국처럼 거대한 제사 용기가 아니라 쌀농사에 근거한 공동체라는 점과도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2. 문화 지체 현상의 선형적 규정

한편 윤무병의 비파형동검 문화의 연구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지나치게 한국 청동기 출현의 연대를 늦게 보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것을 일제강점기 이래 일본 고고학자들에 의해 수립된 한반도 고고학 편년관이 가져온 '문화 지체 현상의 선형적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윤무병은 석검을 통해 청동기시대를 인정은 했지만, 여전히 청동기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앞서 제Ⅱ장 '학문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일본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부터 시작된 지나친 편년의 하향 경향은 한국 학계에 '편년을 낮추어보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전혀 검증되지 않는 비논리를 상식화하는 데 기여했다. 참언하면 편년을 낮추는 것은 올리는 것과 그 연구의 오차가 똑같다. 그리고 단순히 확률적으로 보아도 유적 수가 증가하면 대체로 연대의 상한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적의 발굴과 조사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사성 탄소 연대와 같은 과학적 측정 방법의 발달과 유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경우 연대관은 쉽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정한 오차의 연대 편년을 낮추면 특정한 시대가 공백이 되는 '편년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1960~80년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편년을 늦게 보는 것은 단순한 편년관의 차이이기보다 선입견의 영향이 강하다. 실제로 북한은 차치하고서라도 남한에서도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편년을

소급할 다양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1963년 김해 무계리 지석묘에서 마제석검과 함께 청동촉이 출토된 바 있다(김원룡 1963). 물론 당시는 아직 금석병용기의 편년관이 유지된 시기라서 서기 2~3세기라고 잘못 보았지만,¹¹ 이후 파주 옥석리와 같은 발굴을 통해 그 연대가 소급되었다. 청동기 문화가 가장 늦게 파급될 것으로 생각한 남해안의 지석묘에서도 이미 청동기가 반출되었음은 사실상 청동기시대에 청동기의 본격적인 사용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고흥 운대리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고, 윤무병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비파형동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남산근, 정가와자, 하가점 등 만주에서 수많은 비파형동검 관련 유적이 출토되었고 그 편년적 위치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졌다. 이러한 자료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를 기원전 4세기대로 고정시킨 것은 이후 편년의 설정에 일정 정도 장애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거시적인 시각과 다양한 자료의 취합 대신에 남한 청동기의 연대를 전세기 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늦게 잡으려는 선입견이 결부되어 남한 청동기시대의 편년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V. 마치며 - 한국 청동기 연구의 시작, 그리고 21세기

본고에서는 만주국 출신으로 북방 지역의 고고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윤무병의 업적을 그가 처한 주변 환경과 동료였던 김원룡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윤무병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배경은 <그림 4>로 정리할 수 있다.

그동안 윤무병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세형동검의 형식 분류가 지목되었다. 하지만 그에 못잖게 윤무병의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은 청동기시대의

11 이러한 편년관은 당시까지 통용되던 미카미 쓰구오(1951)의 남방식 고인돌의 편년안(기원전 2세기~서기 4세기)에 근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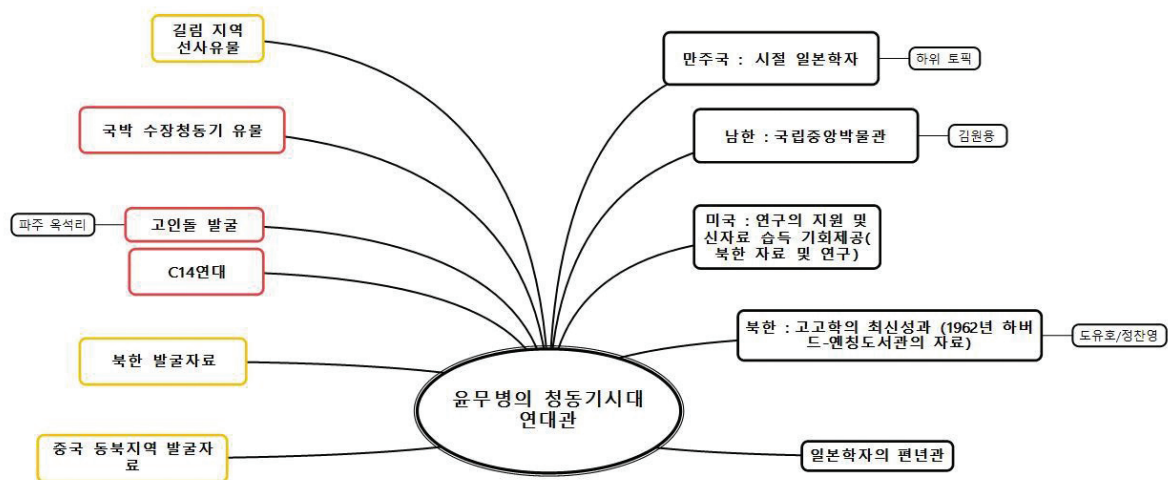


그림 4 윤무병의 청동기시대 연구의 모식도(좌측은 자료, 오른쪽은 연구 및 방법론의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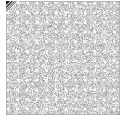
설정이다. 1960년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한국 지석묘의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파주 옥석리의 발굴은 청동기시대를 설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1960년대 초반 북한과 중국의 발굴 성과를 민첩하게 소개하여 일제강점기의 동검 형식 분류의 틀을 깬 김원룡과, 고인돌을 주요 프로젝트로 발주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노력이 있었다. 비파형동검 단계의 청동기시대 존재를 설정하되 마제석검을 중심으로 하는 편년 체계는 지금도 그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지나친 형식 분류와 일본 편년관에 의존하여 청동기시대의 편년관을 지나치게 낮게 잡고 1980년대에 새로운 연구 자료가 등장했음에도 그 편년관을 고수한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윤무병의 연구의 영향으로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문화 지체 현상’이 보편적인 편년 체계로 정립된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편년을 늦게 보는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 편년 체계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하여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의 연구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윤무병의 청동기시대와 비파형동검 문화의 설정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지체 현상을 감안하며 한반도의 청동기 연대를 늦게 편년

하는 분위기는 이미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바뀌었다. 일본 고고학계는 지난 2003년 국립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야요이 연대를 BC 900년으로 한 번에 600년 가까이 소급시켰다. 그리고 일본 국립역사박물관 연구팀이 이러한 연대 소급을 위하여 근거로 든 유적은 윤무병이 한국 청동기시대의 편년을 수립하던 1970년대 초반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남산근 101호 묘의 중원 예기였다. 즉 같은 유적의 연대를 일본 학계 스스로 600년 넘게 연도를 소급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은 지난 1970~80년대의 편년관이 실제 유적의 연구가 아니라 문화 지체 현상을 선형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임을 반증한 것이다.

물론 21세기의 시각으로 윤무병의 연구를 재단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냉전이라는 시대적 한계와 고고학적 방법의 미비라는 배경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무병의 시대적 한계를 인지하고 그가 견지했던 유물에 대한 천착이라는 고고학적 전통을 새로운 연대관과 거시적인 안목에 결합하여 새로운 연구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 세계화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 고고학의 저변을 확장해야 하는 시점에 윤무병의 연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본고는 2020년 10월 한국청동기학회 주최 ‘윤무병 선생님 청동기시대 관련 연구 성과 조명’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고를 통해 많은 견해를 주신 선생님들께 사의를 표하며,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9S1A5C2A01083578).



참고문헌

- 강인욱 외, 2009, 『박물관 소장 두만강 유역 선사시대 유물 연구: 연길 소영자 유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물관.
- 강인욱 외, 2020, 「유라시아연해주 금속 루트와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계통」, 『인문학연구』 44, 7~45.
- 김영배·안승주, 1976, 「부여 송국리 만주식 동검 출토 석관묘」, 『백제문화』 7집.
- 김원룡, 1952a, 「경주 구정리 출토 금석병용기 유물에 대하여」, 『역사학보』 1.
- 김원룡, 1952b, 「藤田亮策·梅原未治 共編 朝鮮古文化綜鑑」, 『역사학보』 2, pp.125~130.
- 김원룡, 1960, 「遼寧 西岔溝 古墳群 出土의 一短劍」, 『미술자료』 제2집.
- 김원룡, 1961, 「십이대영자의 청동단검묘 - 한국 청동기문화의 기원 문제」, 『역사학보』 16.
- 김원룡, 1962,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기원 문제」, 『서양사론』 3권, pp.103~104.
- 김원룡, 1963, 「김해 무계리 지석묘의 출토품」, 『동아문화』 1.
- 김원룡, 1964,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문화사대계 1 - 민족국가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원룡, 1970, 「조형 안테나식 세형동검의 연구」, 『백산학보』 8.
- 김원룡, 1974, 「傳 무주 출토의 요녕식 동검에 대하여」, 『진단학보』 38.
- 김원룡, 1976, 「심양 정가와자 청동시대 묘와 부장품 - 예맥 통구스의 청동 전기 문화」, 『동양학』 6, pp.137~157.
- 김원룡, 1987, 「나의 韓國 古代文化 研究 遍歷」, 『한국사 시민강좌』 1, pp.116~137.
- 김재원·윤무병, 1967, 『한국지석묘연구』(국립중앙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6집).
- 도유호, 1960, 『조선 원시 고고학』.
- 윤무병, 1953a, 「高麗北界地理考(上)」, 『역사학보』 4호.
- 윤무병, 1953b, 「高麗北界地理考(下)」, 『역사학보』 5호.
- 윤무병, 1958, 「吉州城과 公嶮鎭 - 公嶮鎭 立碑 問題의 再檢討」, 『역사학보』 10호.
- 윤무병, 1963, 「천안 두정리의 수혈주거지」, 『미술자료』 8집.
- 윤무병, 1966, 「한국 청동단검 형식 분류」, 『진단학보』 29·30.
- 윤무병, 1964, 「大邱 發見의 靑銅斧」, 『고고미술』 47~48호.
- 윤무병, 1972, 「한국 청동유물의 연구」, 『백산학보』 12.
- 윤무병, 1976, 「한국 청동기시대의 문화」, 『고고미술』 129·130.
- 윤무병, 1987, 「요녕 지방의 청동기문화」, 『한국 상고사의 제문제』.
- 윤무병, 1991, 「나의 韓國 考古學 研究」, 『한국사 시민강좌』 8, pp.128~148.
- 윤무병박사회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4, 『윤무병 박사 회갑 기념 논총』.
- 윤정하·강인욱, 2021, 「청주 오송 유적 출토 부여계 동병철검의 의의」, 『한국상고사학보』 112, pp.29~52.
- 이기성, 2017, 「한국 고고학 형성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7, pp.101~118.
- 이기성, 2018,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9, pp.41~70.
- 전영래, 1978a, 「韓國 磨製石劍·石鐮 編年에 관한 연구」, 『마한백제문화』 4·5집.
- 전영래, 1978b, 「한국 청동기문화의 연대 상한 문제」, 『전북유적조사보고』 8집.
- 정백운, 1957, 『조선 금속문화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과학원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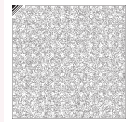
참고문헌

- 정백운, 1958, 「우리나라에서 철기 사용의 개시에 관하여」, 『문화유산』 58-3.
- 정중현, 2019,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민족문화유산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52호.
- 정찬영, 1962, 「좁은 낫단검의 형태와 그 변천」, 『문화유산』 62-3.
- 조진선, 2005, 『세형동검 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 靳楓毅, 1982~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 『考古學報』 82-4, 83-1.
- 錦州市博物館, 1960, 「遼寧錦西縣烏金塘東周墓調查記」, 『考古』 1960-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第2期.
- 朱貴, 1960,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1,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제1권) - 樂浪 以前』, 養德社.
- 三上次男, 1951, 「滿鮮古代における支石墓社会の成立 - 北東アジア古代社会の一形態」, 『史學雜誌』 제60호-1.
- 有光教一, 1968, 「朝鮮磨製石劍の年代論について」, 『史林』 51-4.
- 秋山進午, 1968~69, 「中國東北地方における初期金屬器文化期の様相」, 『考古學雜誌』 53-4, 54-1, 54-4.

- Salmony, A., 1933, *Sino-Siberian art in the collection of C. T. Loo*.
- Salmony, 1943, *The Find from Kopeny in the Yenisei Valley: A Siberian Gold Treasure of the Migration Period*.



A new glimpse on the foundation of the Bronze Age concept in Korean archaeology

KANG Inuk Professor, Dept. of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anginuk@khu.ac.kr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Bronze 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s suggested by Korean archaeology shortly after liberation. There is no doubt that Moo-Byung Yoon is the representative figure, who refuted the ambiguous Eneolithic age (金石併用期) created by Japanese scholars and settled the concept of the Bronze Age. In this article, the author takes a new look at Yoon's institutional role in studying the Bronze Age in Korea. Until now, Yoon's representative achievement has been his typology of the Slender dagger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 is not less important that Yoon also established the Bronze Age concept with the excavation of a dolmen and a Bronze Age subterranean dwelling in Oksok-ni, Paju during the 1960s. Of course, it was not a personal assignment for Yoon. He was aided by Prof. Kim Won-Yong's work, who had introduced newly excavated materials from North Korea and China; these materials gave some insight for establishing the Bronze Age concepts in the 1960 and 1970s. Kim's sugges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a Korean Bronze Age led to Yoon's refined typological study on Korea's bronze wares. However, Yoon's excessive schematic classification of artifacts and reliance on the Japanese chronology became an obstacle for making the Korean Bronze Age isolated from East Asia. As a result, it is regrettable that his research led to the "cultural lag" phenomenon of Bronze Age research. Meanwhile, Japanese archaeology, which had influenced Yoon, also faced a major change. In 2003, the Japanese archaeological community revised the Yayoi culture's beginning around the 1,000 BC. This means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we should understand Japan's Bronze Age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continent. Of course, it is not appropriate to reevaluate or denigrate Yoon's research from the current view. Rath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Yoon's time and present a new path to research by combining the archaeological tradition of refining research on the relics he maintained with a new chronological view and a macro view of East Asian archaeology. This is why we should take a new glimpse into Yoon's research.

Keywords Korean Bronze Age, Slender dagger, Yoon Moo-Byong, Kim Won-Yong, history of archaeology

Received 2021. 03. 30. • Revised 2021. 04. 16. • Accepted 2021. 04. 18.

